

목포시음악축제 명칭, '목포 뮤직 플레이'로 확정

공모 및 선호도 조사로 결정...총 445건 접수 9월 30일~10월 3일 갯바위문화타운서 개최

목포시가 목포음악축제의 공식 명칭을 '목포 Music Play(뮤직 플레이)'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목포음악축제 명칭을 공모했고, 총 445건을 접수해 시홈페이지를 통해 선호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최우수작에 '목포 Music Play'가, 우수작에 '도레미포술'이, 장려작에 '목포와쨍'이 각각 선정됐다. 이에 따라 '목포 Music Play'는 음악축제 공식명칭으로, '도레미포술'과 '목포와쨍'은 행사 세부 프로그램 명칭으로 각각 활용된다.

'목포 Music Play'는 목포(Mok-Po)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명칭으로 '목포에서 놀다'로 해석

될 수 있으며 목포MP축제, MPMP로도 간결하게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선호를 얻었다.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 동안 갯바위 문화타운에서 개최될 '목포 Music Play'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전국규모 경연대회를 비롯해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경연대회는 예선, 준결승, 결승으로 구분해 진행되며, 준결승과 최종결승은 축제장에서 진행되는데 축제 마지막 날 상위 TOP5 파이널 공연과 시상식이 개최된다. 또한 재즈, 시립예술단체 공연, 목포음악사 전시, 음악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도시' 목포의 면모를 선보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목포 Music Play를 통해 목포가 '음악의 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음악을 주제로 한 문

화예술상품을 구성해 관광과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영광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선의의 경쟁 유도·주민 만족도 상승

영광군은 신속한 민원처리로 친절한 민원행정 실현을 목표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법정처리기간보다 민원을 더 신속하게 처리한 경우 그 단축한 기간만큼 민원처리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표창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선의의 경쟁 유도와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군에서는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마일리지제와 별도로 부서별 민원처리 단축률을 비교 평가해 우수 부서에 포상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연처리 민원이 있는 직원은 마일리지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서평가에도 패널티를 적용해 지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고 연 2회 마일리지제 우수 부서 6개소와 직원 6명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적기에 살포하세요

총 3회, 방제시기별 해당 적용약제로 예방 철저

영암군은 과수화상병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관내 배·사과 재배농가(277농가, 328ha)를 대상으로 사전방제 약제 총 3회분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과수화상병은 전국 6개도 26개 시군에 발생하였으며,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발생 시에는 과원을 폐원해야 하는 국가 검역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되고 있다.

화상병 미발생지역인 영암군은 올해부터는 총 3회(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에 걸쳐 사전방제를 시행해야 한다. 1차 방제는 배의 경우 꽃눈 발아 직후 3월 중순부터 3월 하순까지, 사과는 새순 발아 시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방제해야 한다. 2·3차 방제는 각각 풍선기(4월상순)와 낙화기(4월중순)에 맞춰 전용 약



제를 살포해야 한다.

또한, 약제를 뿌린 뒤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약제별 각각 해당 적기에 살포해야 하며, 희석배수 등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방제 대상 농가는 같이 배부한 영농기록장을 참고해 약제를 방제한 후 살포한 약제 봉지는 1년간 자체 보관해야 하며, 약제 방제 확인

서와 농작업 기록장을 철저히 작성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사전방제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공격 방에 손실보상금 지급이 최소 25%에서 최대 100%까지 감감될 수 있다"라며 "과수화상병 유입을 효과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제약제 적기 살포, 예방 교육 이수, 목포구매 시 사전 검사, 작업용 도구 소독 등 실천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라며, 이상 증상 발생 시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바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무안읍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대상자 모집

무안군은 무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주요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2년 무안읍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에 주소나 거주·생활권을 둔 주민 5인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면 누구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문화·복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무안읍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비는 건당 최대 1000만원으로 군은 총 3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무안군청 지역개발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총 12개 단체가 참여해 드론 촬영·비눗방울 퍼포먼스 기술 습득 및 홍보영상 제작, 후정동마을 종탑 복원, 그림책 북아트 활동, 마을지도·향아리 문패·3D 프린터 활용 사업지 모형(미니어처)·도시재생 홍보 창작곡 제작, 지역 농산물 활용 퓨전음식(말키트)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최기후 지역개발과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스스로 기획한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공동체 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함평군,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 함평상품권 지급

함평군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15일 "농어업·임업 경영체 등록된 농어민 8,420명을 대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을 4월중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군은 올해 1~2월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3월 중 자격 여부 파악 후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초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농어업인의 경영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신안군, 수지도 낙도어업인 안전센터 준공식



신안군은 지난 12일 비금면 수지도에서 군민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지도 낙도어업인 안전센터 준공식' 및 청년소득 임대어선 취항식'을 개최하였다.

안전센터 사업은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는 1억 2천만원(국비 50%, 군비 50%)이었으나, 군비를 추가 투입하여 총 사업비 4억 4백만원으로 외부 위생 화장실, 태풍과 강풍에도 버틸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

신안=이덕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